＜第471～475回＞

優秀發明紹介

이달의 優秀発明

◁發明振興部▷

어린이用 침대의 搖動裝置

上·下 運動 잘되고 長期間 使用可能

本 發明은 어린이用 침대의 요동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정수련氏 外1名(경기도 안양시 초계동 717～3)에 의해 開發되어 特許 第17523號로 登錄(84. 8. 24)되었다.

本 發明은 침대판 저면 양측에 동일극이 저부로 노출되게 강력한 영구자석을 부착하고 대향지게 받침틀 상면에 전자석을 착설하여 이들의 磁力에 의해 침대판의 양측이 交代로 요동되게 하되 반정도의 물을 充填시킨 관을 착설한 자주변환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양측 전자석의 극성이 교대로 變換되도록 發明되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유치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從來에는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침대판이 요동되게 하였으나 작동시 騷音이 많고 衝激이 가해지거나 몸무게가 무거운 어린이일 경우 기어의 파손 또는 마모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本 發明은 침대판이 자동적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측이 교대로 上·下 운동되며 작동시騷音이 없으며 衝激시 파손되거나 마모되는 일이 없고, 장기간 사용도 가능하다.

(第471回 이週의 優秀發明)

석유난로의 空氣調節裝置

空氣供給 및 調節 손쉬워

本 考案은 석유난로의 공기조절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성태일氏(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4동 139～21)에 의해 開發되어 實用新案 第26805號로 登錄(84. 9. 3)되었다.

本 考案은 연소통 下部에 착설한 석유탱크의 중앙 공기 공급 통로에 원판형 공기 조절 댐퍼가 장치되어 심지를(크게) 높이면서 공기통을 열어주고 심지를(적게) 내리면서 공기통을 닫아주는 장치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열을 효열적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考案되었으며 가정이나 난로를 사용하는 商家에서 使用 가능하다.

從來에는 석유난로나 풍로에 심지 조절장치만 있었기 때문에 석유냄새 및 거스름이 생기는 일이 있었으며 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왔으나 本 考案은 석유난로나 석유 풍로의 연소량에 따라 공기공급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공기 流通이 심한

商家에는 공기 공급량을 적게 하므로 심한 바람이 불 경우 불꽃이 커지지 않으며 완전 연소된다. **(第472回 이週의 優秀發明)**

조류알 껍질을 이용한 문양의 상감기법

견고·미려하며 색상처리 참신

本 發明은 조류알 껍질을 이용한 문양의 상감기법에 관한 것으로써 김영규氏(서울 강남 반포 2동 경남 APT 7동 607호)에 의해 開發되어 特許 第17568號로 登錄(84.9.5) 되었다.

本 發明은 금속선이나 가개선을 이용하여 문양 외곽선을 형성한 후 조류의 알껍질을 15—60분정도 삶은후 皮膜을 제거하고 산 또는 알카리로 세척 처리하며 특수가공방법으로 着色시켜 정선 처리하여 切削한 것을 문양내의 넓은 여백에 부착시켰다.

종래의 나전칠기는 자연 그 자체의 빛을 너무 혼하게 濫用하고 있어 진귀한 멋이 없었으나 本 發明은 경제적인 면에서 견고하고 미려한 색상의 창출과 균열된 독특한 표면의 처리가 참신하다. **(第473回 이週의 優秀發明)**

비상 無動力昇降機

無動力으로도 迅速 稼動

本 發明은 火災發生시 비상탈출에 使用되는 무동력 昇降機에 관한 것으로써 김명순氏(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2~11)에 의해 開發되어 特許 第17649號 登錄(84.9.19)되었다.

本 發明은 일정 크기의 승강대와 무게 추를 와이어로프로 상호 연결시켜 서로 연동적으로 昇降되게 하되 무게추의 중량을 승강대 자중보다 크게 하고 승강대 자중과 탑승 하중을 합한 것보다는 적게하여 동력을 이용하지 않아도 승강 구동력을 얻게 하고 昇降시 發生되는 回轉力을 원심력 진자에 전달시켜 昇降 속도를 점지케 한 비상 무동력 昇降機에 관한 고안으로 호텔 및 고층빌딩에 설치가 가능하다.

從來에는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의 非常口나 창문 또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탈출대와 줄다리, 로오프, 완강기를 使用하므로서 많은 인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안전한 탈출수단이 되지 못했으나 本 發明은 화재의 發生시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내에 안정되게 대피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전원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써 가동할 수 있다.

(第474回 이週의 優秀發明)

형광등의 조광장치

電流의 量 調節可能

本 考案은 형광등의 밝기를 임의대로 調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영권氏 外 1명(서울 성동구 사근동 291~31 삼익아파트 103號)에 의해 開發되어 實用新案 第26951號로 登錄(84.9.26) 되었다.

本 考案은 트랜스의 2次線을 휠라멘트 형광구 양극(+, −)을 각각 연결하고 휠라멘트의 양극 0점과 트랜스의 입력선 한쪽은 전류 제어회로의 형광구 양극(+, −)을 연결하였으며 형광구 양극(+, −) 사이에 출전기를 사다리꼴로 연결하고 전류제어회로의 볼륨을 회전시켜 휠라멘트 형광구 양극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형광등을 사용하는 가정에 설치 가능하다.

從來에는 백열등과 다른 형광등은 일종의 방전관이어서 이것을 조광하는데는 백열전등과 같은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광도의 20%가 고작이었다.

(第475回 이週의 優秀發明)

배워익힌 과학지식 생활속에 심어보자